

The Reunified Korea Economy

月
刊

統一經濟

1999. 4 통권 제52호

現代經濟研究院

統一經濟

4

1999

제52호

편집자의 글

대북 정책에 인내와 호연지기를2

포커스

페리보고서와 대북 정책 방향 • 김영희4

특 집

경협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활용 방안

남북협력기금 확충을 위한 제언 • 최수영10

경협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및 활용 방안 • 이광희15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구 동서독 사례의 시사점 • 안두순21

특별기고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 1년 평가와 향후 과제 • 전홍택 • 고일동30

논 단

금강산 관광 사업의 의의와 전망 • 김용호46

금강산 관광 사업이 국가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조성규58

동북아시아 물류시스템 현황과 효율적인 연계 방안 • 이찬우70

북한경제

북한의 시장 경제 교육 및 경제·무역 조직 정비 현황과 전망 • 권오홍87

해외기고

최근 남북한 사회·경제 여건의 수량적 비교 • Nicholas Eberstadt95

통 권 제52호
 등록번호 라-6925
 등록일자 1994년 12월 2일
 발행일자 1999년 4월 10일
 발행인 김중웅
 편집인 정순원
 편집위원 김형균 유병규
 김선덕 김희성
 박태일 황동언
 편집주간 홍순직
 제작주간 심재철
 편집교열 장은숙
 발행처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전화 (02)724-4114
 F A X (02)730-1770
 인쇄 서울컴퓨터인쇄사
 대표전화 (02)636-0565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는 무단 전재와 역제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대북 정책에 인내와 호연지기를

보미 금창리 핵협상이 타결됨으로써 1994년의 제네바핵합의 원칙 이행을 재확인하였다. 이로써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북미 관계는 핵합의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고, 지하 핵시설에 대한 미래의 의혹까지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연초에 話頭가 되었던 한반도 위기설을 잠재웠다. 특히, 이번 협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취임 이후의 첫번째 외교적 시험 무대였다는 점에서, 북한에게 적절한 동기만 부여하면 대화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상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장기적이고도 포괄적 일괄 타결안은 매우 時宜適切한 대북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북미 협상은 향후 대북 정책의 기본 틀이 될 페리보고서와 주변국과의 공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의 대북 정책과 남북 경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의미에서 '페리보고서와 대북 정책 방향'을 포커스의 주제로 다루었다. 또한 특집에서는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해제 기대와 본격적인 경협 활성화에 대비하여 남북협력기금의 확충 방안과 민간 경협으로의 기금 지원 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분단국이었던 구 동서독의 사례는 오늘날의 남북협력기금 활용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특별기고에서는 새정부 들어 시행한 '4·30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 1년을 평가해보면서, 아직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경협 성과의 원인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점검해보았다. 이는 특집 주제들과 함께 오늘날 남북 경협의 현주소와 시급한 해결 과제들을 알려주는 유용한 자료인 만큼,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논단에서는 (주)현대아산 출범으로 본격화될 '금강산 관광 사업의 의의와 전망'을 살펴보고, 이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소상히 분석하였다. 특히, '금강산 관광 사업이 국가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금강산 관광 사업이 북한 경제 재건과 남북한의 굴뚝없는 외화 가득 사업으로서 갖는 국민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 사업의 중요성을 되짚어보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어서 '동북아시아 물류시스템 현황과 효율적인 연계 방안'에서는 한반도를 동북아의 중심 물류 기지로 성장·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각 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 등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남북 경험과 국토 개발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경제 코너에서는, 최근 북한 경제 관료들의 시장 경제 교육 움직임과 경제·무역 조직 정비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았다. 세계은행 등을 통해 경제 관료들에 대한 북한의 시장 경제 교육은, 북한이 폐쇄적 계획경제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방과 시장 경제로의 편입을 향한 향후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예고하는 주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밖에 해외기고에서는 한반도 경제 전문가인 Nicholas Eberstadt 연구원이 남북한의 사회·경제상을 외국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북한 경제의 실상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북미간의 금창리 협상 타결로 한반도 불안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다. 북한이 이러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지 여부도 미지수이며,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대량 살상 무기 위험도 여전히 상존해 있다. 또한 북한의 通美封南 전략과 남한 당국자 배제의 이중적 태도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도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며,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남북한당국자회담이나 이산 가족 재회 사업 등과 같은 특정 사안에 지나치게 연연하여 조급한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신뢰 회복 분위기 조성이라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포용 정책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지나친 樂觀의 誤謬도 경계해야 하지만, 지나친 悲觀의 自充手는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북한의 태도 변화 기대와 함께, 이를 지켜볼 수 있는 忍耐와 浩然之氣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새봄을 맞아 한반도 곳곳에서 화해의 기운이 피어날 것으로 보인다. 4월의 대규모 종교 단체 방북에 이어, 계절의 여왕 5월에는 남북한평화음악회가 평양에서 열려 평화의 하모니가 울려 퍼질 예정이며, 금강산에서는 선남선녀들이 쌍을 지어 새로운 21세기 통일 인생을 설계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교류 확대는 분단의 공백을 메우고 새로운 만남을 약속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성사되고 만남도 찾아져, 한반도의 냉전 구조 해체와 평화 안정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1999년 4월

편집자